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03 [11~15]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

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둘러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혹좌혹립(或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쉰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내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군.
- ②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군.
- ③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 ④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군.
- ⑤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군.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⑤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가)의 「선율 환생」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해서 저승의 가치 판단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특정 행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권계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는 후대의 고소설인 (나)의 「설홍전」에서도 드러나는데, 주인공이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의 판단에 따라 잡혀가 겪는 일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소설 모두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겪는 일을 제시하여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경전을 만들고자 하다 사망하여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경전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선율’의 말을 듣고 이를 마치고 오라며 다시 이승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던 저승에서 이승의 일인 대품반야경을 완성하는 일에 대해 선업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보기>에서 언급한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가는 길에 겪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죽고 나서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묶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인은 법사가 되살아난다면 자신의 부모에게 이를 말해 논을 돌려주고, 자신의 유품인 참기름으로는 불등을, 베는 팔아 경전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라고 하며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이승으로 돌아온 '선율'은 무덤에서 나와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그의 경전 완성을 도와줍니다. 삼국유사에 등장한 이야기이므로 실제로 경주의 승사 서고 안에 있는 경전의 제작 과정에서 전해지는 설화임을 마지막에 알리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로, 실제로 당시 편찬된 '대품 반야경'에 얽힌 설화입니다. 경전을 만들던 중 사망한 승려가 저승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인정받아 특별히 다시 이승으로 오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저승과 이승을 오갈 때 사람을 만나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려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들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坐或立)하였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두들겨 맞은 후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저승으로 끌려가고 있는 '설홍'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통해 설홍이 이승에서 벌인 일로 인해 저승에 끌려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홍은 저승으로 끌려가며 이승의 경치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구려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몽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설홍은 그렇게 저승으로 들어가 이십살도 채 먹지 않은 여자아이가 쇠몽치에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매를 맞는 것을 본 설홍은 사자에게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습니다. 사자는 '여아'가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해 임금을 죽이고 역모를 꾀해 잡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이승의 행동에 대해 저승에서 판단하여 잡혀가는 모습일 뿐 아니라,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권계적 성격 또한 드러납니다.

그러구려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었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중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설홍이 저승으로 불려간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홍은 사실 천계의 선관으로,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와 서로 글을 지어 주고받다 들켜 지상으로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러한 천륜을 어기고 봉황을 꺾어 옥황상제에게 진공해야하는 천도복숭아를 훔쳐 먹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설홍은 이러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입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작자 미상, 「설홍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설홍은 이러한 상황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염라대왕에게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설홍은 봉황이 어딘가에서 열매를 주워 온 줄 알고 그저 먹었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염라대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들은 염라대왕은 원래대로라면 지옥에 가두어야 하지만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 세상에 다시 내려보내 예정되어 있던 고생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설홍은 이렇게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지만 갈 곳을 몰라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앞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저승에 다녀오는 이야기지만, 앞의 '선율 환생'과는 다르게 잘못을 저질러 저승으로 끌려가지만, 염라대왕에게 이를 해명하고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또한, '설홍전'에서는 실제 죄를 지은 주변 인물 등장상을 통해 해당 인물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계하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저승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나)에서는 저승의 모습을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와 같이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이 매우 무서운 곳에 끌려왔음을 제시합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가)에는 선율이 다시 되살아나 여인의 부탁을 이루어주고 경전 또한 완성시킨다는 저승에 다녀온 이후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설홍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므로 경과를 서술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

③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가), (나) 모두 인물들의 대결 구도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작품 모두 절대적 존재인 염라대왕과 만난 후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해당 선지는 잘못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어찌 ~하지 않으리오?'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가)와 (나)는 모두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리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움직입니다.



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
군.

→ 무덤에서 살아난 선율은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주변 목동이 이를 듣고 꺼내 줍니다.

②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군.

→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맞으나, 여
인은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을 선율에게 말해주
고 있습니다. 선율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
는 것은 잘못된 선지입니다.

③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
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 선율이 저승에서 나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염라대
왕을 만난 일을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
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군.

→ 이러한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선율이 생전에 경전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하자 살려주
었을 뿐입니다.

⑤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
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군.

→ 저승에서 빠져나온 선율은 환생하여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선율이 명복을 빌자 여인의 혼이 자신은
'고뇌'에서 벗어났으며 설홍을 다시 찾아오는데, 선율
은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
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 왕명을 어이하리오

㉣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①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선율이 살아날 줄 모르고 이미 장례를 치러버린 이승
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
건이 아닙니다.

② ㉡: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15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여인의 물품들을 통해 여인
이 부탁한 참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베를 팔아 경전을
만드는데 써달라는 바람을 실현해 줄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③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
타내고 있다.

→ 염라대왕이 설홍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저승의 힘이 개입되어 저승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
는 점이 드러납니다.

④ ㉣: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
을 나타내고 있다.

→ 설홍이 저승으로 가는 길이 산과 바다를 건너야 한
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 것으로 설홍의 '다리는 중장같이 붓'게 만들
게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⑤ ㉤: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설홍이 상제에게 바칠 천도를 훔쳐먹었다는 죄를 묻
고 있습니다. 이는 염라대왕이 '천명을 거스른' 중죄로
판결하고자 하고 있기에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
태로운 상황입니다.

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말에 일리가 있
다고 판단했다.

→ 염라대왕은 자신이 천명을 거스르려 일부러 천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봉황이 주워다 주었기 때문에 별 생
각 없이 먹었던 것이라는 설홍의 말을 일리 있다고 판
단하여 이승으로 다시 보내 줍니다.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염라대왕은 설홍이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라며 어짜피 세상으로 나
가도 고생할 것이니 허물 없이 살라며 내보내줍니다.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라며 이승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설홍은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었기로 먹었사오니’라며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⑤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녕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로 정해진 채로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으로 태어났습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보기>에서 말했듯 선율이 이승에서 수행하고 있던 일이 선업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불경을 완성하는 것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잡아온 이유는 임금을 죽이고 신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하와 간통하고 있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중요하게 여기던 윤리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여인이 가진 죄를 씻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승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에서는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며 저승 체험이 단순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어 구체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저승을 오가는 길에 만남을 이루어지게 해 구체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에서는 선율이 경전을 만드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사망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해명에 납득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윤리적 정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선지입니다. 또한,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윤리적 정당성을 묻고 있지도 않습니다.

⑤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앗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도둑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에서는 부모가 절의 논을 훔친 죄로, (나)에서는 옥황상제에게 바쳐져야 할 천도를 앗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드러납니다. 이는 도둑질을 저승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죄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